특별사적 기이성터

7세기 중엽, 당시 일본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상황 속에서 백제의 부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당 연합군과 전투를 치렀으나, 663년 백강구 전투에서 대패하며 철수하였습니다.
이후 나당 연합군의 일본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규슈 북부에 서둘러 방위시설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664년 수비병과 봉화를 설치함과 동시에 미즈키성을 세우고, 665년 방위의 요충지였던 다자이후 북쪽에 오노성을, 남쪽에 기이성을 축조하였습니다.

추천 산책로(굵은 선)
분기점

기이성 주요 유적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①수문터 · 남문터→쌀 창고 초석군→③종루터→④저수지터→⑤동북문터→마루오 초석군→⑦대초석군→⑨기잔 산 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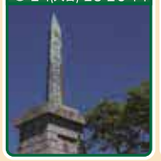
소요 시간: 약 2시간(개인차 있음)

❶ 수문터·남문터

이곳은 곡지라는 지형 특성을 살려 석루를 축조했습니다. 현재는 길이 26m, 높이 8.5m, 상부 폭 3.3m가량이 남아있습니다. 석루 일부에는 수문터가 있습니다. 수문터는 성내의 곡수가 합류한 스미요시 강(쓰쓰 강)의 물을 방류하기 위해 하류 방향으로 경사진 형태를 띠고 있으며, 석루 하부를 관통하여 길이 9.5m, 높이 1.4m, 폭 1m가량의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사를 통해 배수를 위한 세 개의 수구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입지 특성 상, 수문터 부근에 성 남측 출입을 위한 남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❾ 기야마 정상 (표고 404.5m)

❿ 덴지(天智) 천황 흥양지비



⓫ 다마타마이시

잔디스키장에서 산책로를 따라 끝까지 올라가면 도착하는 사다리꼴 모양의 평평한 지대가 바로 기잔(基山) 산 정상입니다. 이 지대는 중세 남북조시대(14세기)부터 전국시대(15세기말~16세기말)에 걸쳐 기잔 산이 산성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모노간기'와 함께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본성으로, 주위에는 '요코보리(물을 채우지 않는 해자)'가 둘러 있습니다. 전망이 좋은 1등삼각점으로 하카타만, 지쿠시평야, 아소산, 운젠다케까지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남단에는 '다마타마이시'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전승에 따르면 기잔 산 남쪽 기슭에 유서 깊은 아라호 신사가 있을 무렵, 신이 앉아있었다는 '이와쿠라' 바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❷ 동남문터

수문터·남문터의 동쪽 골(호토케다니)에 건축된 길이 15m, 높이 5m가량의 석루가 골짜기를 막는 둔한 모양새로 축조되었습니다. 중앙 부근에 문과 같은 공간이 보입니다. 현재 유적에 대해 자세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❸ 종루 터

이곳은 옛부터 '가네쓰키(타종)'라는 지명이 남아있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원 관련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있어 정보 전달용 시설이 있었다고도 추측되고 있습니다.

❹ 저수지터

기잔(基山) 산 동봉 꼭대기에 있는 터로 직경 18m가량 움푹 파인 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형태로부터 저수지터 또는 봉화터로 추정됩니다. 동일한 흔적을 서봉(기잔 산 정상 부근 능선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❺ 동북문터

성의 동북부로 이어지는 토루(폭 6m, 높이 3m) 사이를 폭 2.7m가량 둘로 나눠 만들어진 문입니다. 문의 좌우 양 끝 기초 부분에는 문기둥의 주춧돌이 남아 있습니다. 근세(17세기)에는 수문터(남문터) 쪽에서 동북문터를 통과해 하기와라(지쿠젠령, 현 지쿠시노시)로 가는 지름길로 이용되며 '하기와라고에(萩原越え)'라고 불렸습니다.

❻ 기타미카도 문터

성 북부에 위치한 기타미카도 문터는 옛 관청인 다자이후 쪽을 향한 정면 현관 격인 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토루 사이에 폭 4m가량 끊어진 부분이 있으며 돌담이 남아 있습니다. 문은 가장 안쪽 중앙부에 지어졌습니다.
또한 문 안쪽에도 토루 사이가 끊긴 곳이 있어 이중으로 문이 놓여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❼ 대초석군

대초석군은 기둥의 주춧돌이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초석 건물터로, 주간(柱間)이 10칸×3칸입니다. 성안에서 이 건물만이 유난히 크고 성안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세워져 있어 무언가 특별한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성안에는 창고로 사용되었을 법한 건물터가 약 40동가량 발견되었으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은 주간 5칸×3칸 크기입니다. 이 건물 크기는 665년 당시 기이성과 동 시기에 축조된 일본 최고(最古)의 산성인 오노(大野)성터 건물과 동일합니다.

❽ 이모노간기

이모노간기는 중세(13~15세기경) 무렵 산성으로 다시 사용될 때 기잔 산 정상 토루선 일부를 네 군데 갈라 만든 '호리키리(고랑형 방어 시설)'입니다. 모양이 고구마밭 이랑을 닮아 '이모(고구마)노간기'라 불립니다. 이 유적 남쪽에 있는 사다리꼴 모양 주성에 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입니다.

토루

산성 전체를 둘러싼 토루선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여러 골짜기의 석루(돌담)와 이어지며 성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루는 성 외측 사면의 가파른 지형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외측 사면 위쪽 부근의 지형을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English 繁體中文 简体 日本語